

제 목: 최근 도내 해외송금 관련 사기 의심사례 확산에 따라 피해발생 방지를 위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 필요

- 한국은행 제주본부(본부장 박구도)는 최근 며칠 사이 도내에서 외국환 송금 관련 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확인하였음
 - 해당 사례는 외국 정부, 중앙은행,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 등을 수취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수수료·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안내*받고, 민원인이 해외송금을 위해 당행 또는 외국환은행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확인
- * 개인정보 탈취를 통해 50, 60대 남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휴대전화 문자 및 전화 등으로 송금사기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
- 외국환 송금·수취 등의 경우 「외국환거래법」에서는 거래유형에 따라 당행 및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신고를 하고 해외송금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
- 다만, 소액의 송금·수취 등 일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사전신고 없이 송금 등이 가능함에 따라 부지불식 중 금전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므로 피해발생 방지를 위해 도민 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
- 이를 위해 특별한 거래관계가 없거나 지인이 아닌 자, 특히 외국의 유명 기관 등으로부터 해외 송금요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거의 모두가 금융사기이므로 이를 무시하거나 이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

문의처: 한국은행 제주본부 업무팀 과장 양재운, 조사역 시원규

(Tel : (064)720-2532, 2530 Fax : (064)720-2550 E-mail : jejuup@bok.or.kr)

『제주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지역 중앙은행』



한국은행 제주본부